

 금융위원회	<div style="text-align: center;"> <h1>보 도 자 료</h1> </div>				
 금융감독원	<b>보도</b>	<b>2021.4.8.(목) 10:00부터</b>	<b>배포</b>	<b>2021.4.8.(목)</b>	

<b>책 임 자</b>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수 영(02-2100-2850)	<b>담 당 자</b>	윤 우 근 사무관(02-2100-285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02-2100-2830)		황 기 정 사무관(02-2100-283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02-2100-2650)		김 미 정 서기관(02-2100-2651)
	금융위원회 금융지원과장 김 정 명(02-2100-2806)		홍 재 선 사무관(02-2100-1671) 배 수 암 사무관(02-2100-1672)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 이 민 규(02-750-6834)		김 현 만 과장(02-750-6888)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함 용 일(02-3145-8300)		홍 석 린 팀장(02-3145-8001)
	금융감독원 거시건전성감독국장 김 준 환(02-3145-8170)		김 성 욱 팀장(02-3145-817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송 영 훈(02-3774-8505)		황 우 경 부장(02-3774-8730)

## 제 목 : 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4.8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8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민관 전문가와 함께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제3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 시: '21.4.8(목) 10:00 ~ 11:30 / 영상회의
- ◆ 참 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한은) 금융안정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등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 (시장전문가) KB증권, 금융연구원 등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물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 아직은 실물경기 회복의 온기를 민생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한편, 도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1년간 전례없이 증가한 유동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 최근 주요국 정부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부문 위험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정책운용방향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도 부위원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당국도 중장기적 시계에서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를 운용해 나가는 ‘진단-대응 정책체계 (framework)’를 구축·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코로나19 금융상황점검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방역·실물·금융 지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 現 상황이 ‘위기지속 단계 → 회복단계 → 정상단계’ 중 어느 단계인지를 진단해 나갈 계획이며,
  - \* 코로나19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 : 금융위·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코로나19 전개상황, 실물여건, 금융위험 누적여부 등을 점검
  - 상황진단을 토대로, 위기지속 단계에서는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회복단계에 접어들 경우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금융대응조치 수준을 낮춰 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도 부위원장은 이러한 체계에 따라 2021년 3월말 상황을 평가해보면, 코로나19 위기국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평가하면서,

- **현행 금융지원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계 대출 증가세,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국지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은 한층 강화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중 증안펀드와 채안펀드는 지원틀을 유지하되 앞으로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증안펀드의 경우, 시장안정세, 금융권 컨센서스를 감안하여 매입약정기간\*은 금일로 종료하되, 증안펀드 자체는 계속 존속(~'23.4월)하면서 유사시에 지체없이 투입할 것이며,
    - \* 매입약정기간: 증안펀드 출자기관들이 캐피탈콜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간 (펀드조성시 20.4.9~21.4.8로 설정 → 출자기관 동의를 거쳐 재설정 가능)
  - 우량채를 지원하는 채안펀드는 당분간 現 지원여력(1.4조원)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되, 시장불안시 즉시 추가 캐피탈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이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균형잡힌 금융대응조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장 리스크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특히, 최근 벌어진 아케고스(Archegos) 펀드 사태 등은 금융시장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면서,
  - 그 동안 금융완화 기조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잠재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참고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4.2일 기준)

####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7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5.29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44조원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9.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 총 312.8만건, 334.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9.9만건)-소매업(48.9만건)-도매업(37.6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7.5조원)-도매업(43.7조원)-섬유·화학 제조업(2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92.4만건, 132.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20.4만건, 202.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5.3만건/166.5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43.8만건/167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mailto: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1. 진단→대응 정책체계 구축

- ◆ **[진단]** 방역·실물·금융 상황을 판별할 수 있는 대표 지표(15개)를 활용  
→ 現 상황을 ①위기지속 단계, ②회복 단계, ③정상 단계로 진단
- ◆ **[대응]** 상황진단 단계별로 금융대응조치 운용경로(path) 마련
  - 금융당국의 상황인식, 금융대응조치 운용방향을 주기적으로 제시하면서,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대응

### 진단→대응 정책체계 (framework)



## 2. 2021.3월말 기준 상황진단 및 2분기 대응방향

### 1. 2021.3월말 기준 상황진단

- ☐ 방역상황 등의 불확실성이 크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중심으로 어려움이 여전
- ☐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유동성 확대·자산가격 상승, 美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시장변동성 확대 소지 존재

### 2. 2021년2분기 정책대응방향

- ① 방역·실물 상황의 불확실성 지속 → **현행 금융지원 기조 유지**
- ② 가계대출 증가세,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국지적 리스크 관리**
  - ☒ '21.4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추진 / ☒ 기업신용등급 조정 관련 대응
- ③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별 운용성과를 점검하고 시장수요에 맞게 가용재원을 재배분**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은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요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원여력 보강

- ☒ 소상공인·중기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 지속, 연착륙 추진
- ☒ 코로나19 P-CBO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

- 시장안정 프로그램중 수요가 줄어든 증안펀드·채안펀드는 현재의 지원틀을 유지(standstill)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 ☒ [증안펀드] 매입약정기간('21.4.8. 종료) 미연장, 既조성자금 배분가능
  - ☒ [채안펀드] 당분간 既조성자금(1.4조원 지원여력 보유)으로 대응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지원을 보완
- ⇒ 시장불안 확대시 증안펀드·채안펀드 모두 즉각 캐피탈콜 실시·지원 재개

- ※ 백신보급, 국제교류 재개 등으로 '21.下~'22.上 중 상황이 안정화 될 경우,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대응
- ※ FSB 등 국제금융기구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정상화 논의, 주요국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을 고려하며 보조 유지



##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종료, '20.2.7일~'21.2.31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li> <li>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존 프로그램('20.5.25일~)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21.1.18일~)</li> </ul>	16.4조	14.8조
	10.0조	5.7조
	7.0조	5.29조
	3.0조	0.44조
②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20.3.16일~) * 수은·산은·기은·신보 금리·한도 우대 대출, 특례보증 등</li> </ul>	37.8조*	39.0조
③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사 유동성 지원(종료, '20.3.24일~'21.2.31일)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li> <li>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20.3.30일~)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li> <li>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20.7.24일~)</li> <li>코로나 피해 P-CBO('20.4.1일~)</li> </ul>	5.0조	10.5조
	6.1조	2.2조
	20.0조	3.0조 (30,401억원)
	11.7조	3.8조

\* 수출입은행 '21년 신규지원 목표금액(8.7조원) 반영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13,101건 (1,194억원)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10,651건 (4,339억원)
-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6.29일~) : 9,110건 (594억원)

##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59.9만건 19.1조원	48.9만건 22.9조원	37.6만건 43.7조원	20.1만건 57.5조원	16만건 12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 제조업	숙박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10.7만건 6조원	8.8만건 24조원	3.6만건 7.4조원	3.4만건 19조원	103.7만건 123.2조원

구 분 <sup>1)</sup>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7.3만	49.8조	104.8만	60.8조	613건	585억	152.1만	110.7조
	만기연장	9.6만	46조	39만	106.2조	3.7만	1.3조	52.3만	153.4조
보증	신규	40.3만	21.4조	-	-	-	-	40.3만	21.4조
	만기연장	68.1만	49.2조	-	-	-	-	68.1만	49.2조
합 계 <sup>2)</sup>		165.3만	166.5조	143.8만	167조	3.7만	1.3조	312.8만	334.8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①, ②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